동신대, 나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1500만원

동신대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차 모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동신대(총장 이주희)는 최근 나주시청 시장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1차 기부금 을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전달했다.

동신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이주희 총장이 500만원을 쾌척하는 등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모두 1500만원을 모금했다. '지역이 발전해야 대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으며 이에 참여자를 추가 모집, 조만간 2차 기부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가 사랑하는 동신대가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스코, 광주 5호 나눔명문기업 인증패 받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는 지난 2일 다스코(주)(회장 한상원)에 광주사랑의열매 5호 나눔명문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다스코(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억 440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을 광주사랑의열매로 기부하며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한상원 회장은 "다스코(주)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나눔명문기업으로 앞으로도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3년 창업한 동아앵글이 모태인 다스코(주)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광주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한상원 회장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곡성 노현성·홍순진 부부 전남 부부 나눔리더 1호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는 노현성·홍순진 부부가 전남 사랑의열매 최초 부부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

곡성 1호 부자 아너소사이어티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현성·홍순진 부부는 "부부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누군가 또 나눔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남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FIFA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2023 하이라이트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2023 FIFA U-20 월드컵 하이라이트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와츄 프리매직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남도 지오그래피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인앱(재)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영화가 좋다(재)	25 기분 좋은 날(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어쩌다 마주친, 그대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55 2023 U-20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신화는 계속된다〉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9층 시사국(재)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베스트
12	15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선-몰타의 고양이	10 노머니 노아트(재)	10 스포츠 매거진 50 앙코르 UHD 특선 다큐 〈드라이빙 트래블러〉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TV프로그램 6일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놀면 뭐하니? 스페셜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55 제68주년 현충일 추념식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마이 리틀 히어로(재)	50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55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10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11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30 불후의 명곡(재)	45 MBC 뉴스 5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SBS 뉴스 10 관계자 외 출입금지(재)
12	00 KBS 뉴스 10 역사저널 그날(재)	50 생존게임 코드레드(재)		40 강심장리그(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2023 프로야구 〈SSG:KIA〉	45 MBC스포츠 2023 KBO리그 〈한화:두산〉	40 SBS 뉴스 50 2023 프로야구 〈LG:키움〉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3	00 즐거운 챔피언 시즌3 어울림픽(재)			
4	00 공영방송 50주년 특별기획 장바구니 집사들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5	00 KBS 뉴스 5 10 동물의 왕국	10 놓친 예능 따라잡기 40 세컨 하우스 2(재)	3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40 신발 벗고 돌싱포맨
6	00 6시 내고향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2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40 생방송 토론740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어쩌다 마주친, 그대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5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00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20 강심장리그
11	10 다큐 인사이트(재)		30 100분토론	
12	00 사랑의 가족(재) 55 생활의 발견	25 아이 러브 스포츠 50 스튜디오 K	55 TV예술무대	00 열린예술무대 뒤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5일(음 12월 29일 戊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라. 48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60년생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수도 있다. 72년생 내실을 기해야 후회하지 않게 된다. 84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과한 구도이니라. 96년생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손대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6, 59

丑 37년생 상대는 기본 포석을 깔고 접근하고 있느니라. 49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61년생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73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니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 85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맞대응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 97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7, 99

寅 38년생 정성과 솜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50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6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74년생 소문은 사실과 다르므로 연연해할 필요가 없겠다. 86년생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리라. 98년생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6, 61

卯 39년생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하는 형세이다. 51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확실하게 뜯어고치는 것이 낫다. 63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겠지만 점차 확대일로에 놓인다. 75년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번득이는 지혜도 솟아날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87년생 활동력에 따라 좌우되리라. 99년생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32, 60

辰 40년생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던 바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52년생 집착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64년생 순리대로만 처리한다면 무난하다. 76년생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88년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라. 00년생 이미 틀어진 지 오래되었다. 행운의 숫자 : 12, 69

巳 41년생 시작은 힘들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수월해지리라. 53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65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77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89년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01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바이다. 행운의 숫자 : 34, 66

午 42년생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탄없이 행해 보라. 54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66년생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닭 쫓던 개의 양태가 될 수도 있다. 78년생 이미 쏘아 놓은 화살이다. 90년생 실제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02년생 상대의 사정부터 잘 파악해 보라. 행운의 숫자 : 13, 73

未 43년생 참된 인연과의 만남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보인다. 55년생 지난 날일랑 모두 잊고 앞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67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리라. 79년생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구도이다. 91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을 감지할 필요가 있느니라. 03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행운의 숫자 : 20, 67

申 44년생 제반사가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동세로다. 56년생 빛 좋은 개살구에 현혹되면 곤란해진다. 68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80년생 겉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92년생 굳이 감출 필요가 없으니 투명하게 임하라. 04년생 당면 과제를 소홀히 한다면 형세가 힘들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56

酉 45년생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이 없을 것이니 너무 따지려 들지 말라. 57년생 폭이 넓어지고 정도가 깊어지리라. 69년생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여야겠다. 81년생 나올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갈 곳은 넘쳐나겠다. 93년생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낳는다. 05년생 아는 길도 물어보며 가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07, 72

戌 34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 46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58년생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형세임을 알아야 한다. 70년생 임시적이니만큼 전혀 집착할 필요 없다. 82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도량을 구축한다. 94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도다. 행운의 숫자 : 14, 55

亥 35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47년생 실수한다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59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열매는 미미하겠다. 71년생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고 중용의 도를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3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거울이니라. 95년생 망망대해의 일엽편주로다. 행운의 숫자 : 27, 88